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도정 추진동력 확보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2실·9국·2본부서 3실·9국·본부로 변경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 거쳐 이달 말 시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의 첫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으며,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의 기구는 2실·9국·2본부에서 3실·9국·1본부로, 정원은 37명이 늘어나 5,471명으로 변경된다.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전북도는 기업유치, 교육협력 등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과제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설치해 분산되어 추진하던 기업·투자유치 기능을 일원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전북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농생명축산식품국을 이관해 경제부지사가 도정 경제 전반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 대학이 상생 협력하기 위한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해 다양한 지역교육 공동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기업유치 등 공약사업과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기업유치 등 공약사업과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신나는 버블쇼'



지난 2일 오후 완주군 고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버블쇼를 즐기고 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전북도청 외벽에 거북선이 떴다'

영화 '한산-용의 출현' 대사 활용 공연장 글판 '눈길' 민선 8기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의지 담아 공감대 확산 올해 4분기 글판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게시키로

전북도청 공연장 글판에 거북선이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 나아가자! 지금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메인 카피(주제)로 걸려 있다.

전북도가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한산-용의 출현'의 대사를 활용해 4분기 공연장 글판을 제작한 것이다.

영화는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앞 바다에서 학익진 전법으로 왜군을 크게 무찌른 한산대첩을 향해가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압도적 승리의 전투가 시작된다"고 예고해 개봉 전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다.

전북도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영화를 참고삼아 공연장 글판을 제작한 것은 민선 8기 도정 슬로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도청 공무원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희망과 위로, 삶에 대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공연장 글판의 당초 취지 살리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글판의 경우, 홍보기획과 직원들이 주제와 내용에 대한 난상토론을 각각 3차례씩 진행한 끝에 결정됐다. 직원들은 각각 제출한 문안 40여 건을 놓고 토론을 거듭하며 4개 안으로 압축한 뒤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했다. 글판은 분기별로 교체되며 4분기 글판은 10월부터 연말까지 게시된다.

김희경 홍보기획과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를 살려내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라는 도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열망을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상황에 비유해 글판을 제



영화 '한산-용의 출현'의 대사를 활용해 제작된 전북도청 공연장 글판.

작했다"며 "도정 운영의 민생·혁신·실용 3대 원칙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판 제작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 새만금에 유치

이엔디·테이팩스 등 2곳 새만금산단에 1715억 투자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 두 곳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지난 달 30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산단에 (주)이엔디의 '이차전지 양극활 물질 전구체', (주)테이팩스의 '이차전지용 테이프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 조현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김민용 (주)이엔디 대표이사, 김상규 (주)테이팩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이엔디는 새만금 산단(1공구) 14만8,000㎡ 용지에 1,035억원을 투자해 연간 2만 톤 생산 규모의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4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이차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에 제3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새만금 공장 가동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소재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이엔디는 2004년 설립해 자동차용 촉매, 대기환경 개선 촉매 및 설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양극활 물질 전구체를 개발해 독자적인 기술*로 고객 맞춤형 고효율·고성능 전구체를 공급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주)테이팩스는 새만금 산단(1공구) 7만7,000㎡ 용지에 680억원을 투자해 오는 11월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6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1994년 설립해 포장용 테이프부터 식품 포장용 랩과 전자소재용 테이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이며, 2016년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특히, 이차전지용 테이프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국내외 배터리 제조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등 해외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두 기업은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들 기업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도로·항만·공항 등의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전북교육청이 하면

농촌유학도 특별해 집니다

무주, 익산, 남원, 완주, 순창